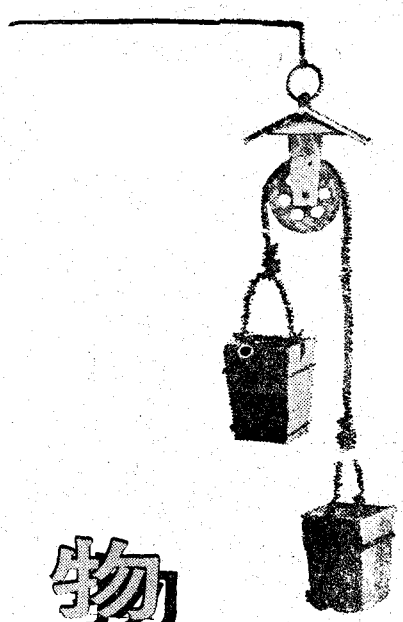

物資節約의 지름길

閔丙權 (第2無任所長官)

生活習性으로 몸에 배도록

예로부터 우리 祖上들은 슬기를 生活속에서 꽃피워 왔다.

일찌기 우리어머니들은 「줌쌀」이라고 해서 부뚜막에 빈항아리를 갖다놓고 밥 지을때마다 몇 숫갈씩의 쌀을 떠모았다가 名節이나 제사 같이 목돈이 필요할 때 팔아서 요긴하게 使用해 왔었다.

이러한 節約의 美德은 우리 民族精神 속에 면면히 이어져 지금 우리가 當面한 物資節約의 課題를 풀어나가는데 原動力이 되었다. 節約이란 용어가 우리 생활속에 파고든 것은 지난 73년의 소위 中東戰爭이 발발한 직후 였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消費가 美德인양 우리의 땀과 눈물로 맞바꾼 外貨로 사들인 귀중한 物資들을 아낌없이 사용했었다.

이에 따라 사치와 浪費하는 風潮가 은연중에 習性化되어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예사롭게 恣行해 왔다.

그러나 中東戰爭을 계기로 油類價가 폭등하자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先進諸國도 經濟的 타격을 받아 國際景氣는 不況의 渦中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여기서부터 物資節約運動의 當爲性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장의 휴지라도 物資化

우리나라 物資節約運動의 출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國際收支赤字의 대폭증가를 들 수 있다.

지난 72년의 國際收支는 3억 7천 1백만달러, 73년은 3억 9백만달러를 각각 보였으나 74년에 와서는 20억 2천 3백만달러, 75년은 18억 8

천 7백만달러로 赤字幅은 急激히 벌어졌다. 이는 中東戰爭으로 인한 石油波動이 주된 요인이었고 國際收支 赤字幅이 3억달러에서 19억달러대로 급증함에 따라 16억달러의 外資를 더 調達해야만 했다.

또한 原油價의 인상과 함께 각종 輸入原資材도 가격이 앙등되었고 品貴현상마저 일어나 石油波動→각국의 景氣下落→輸出沈滯의 加重이란 악순환을 초래케 했다.

다음으로 消費性의 증대를 들수 있다. 60년대에 시작한 經濟開發 계획의 성과를 70년대 초의 好景氣에 따라 우리국민의 일반적인 消費水準이 급상승했고 物資의 消費量 또한 급승했었다. 이러한 消費性向 증대의 결과를 보면 ▲부유층의 소비는 일반대중의 소비를 촉진했고 ▲過剩廣告 역시 일반대중의 소비를 촉진했으며 ▲도시생활의 樣態가 農村社會의 소비를 촉진했다고 할 수 있다.

세째 奢侈性의 蔓延을 들수 있다. 消費性의 급증과 生活面의 여유는 社會全般에 사치를 만연케 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해이 내지는 타락을 불러 왔다.

이에따라 社會犯罪가 증가 했으며 특히 靑少年犯罪는 72년에 4만 5천 4백 69건이던 것이 75년에는 5만 9천 45건으로 무려 1만 4천 10건이 증가 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유흥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또는 精神的 타락속에서 발생한 것이 주원인으로 되어있다.

이상 지적한 것과 같은 사태는 物量面보다는 정신적 측면에서 무언가 조치를 필요로하게 했으며 여기에서 物資節約運動이 胎動케된 것이다.

勤勉 節約바탕아래 貯蓄

작년 10월 朴大統領의 지시에 따라 汎國民運動으로 출발한 物資節約運動은 輸入物資節約에 의한 國際收支改善을 短期目標로, 이러한 短期目標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節約의 生活習性化를 달성함을 長期目標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政府및 政府投資機關이 솔선수범하여 이 운동에 적극참여 하고 있으며 職場새마을 運動을 통한 산업계의 호응을 얻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서 이 운동의 대상 품목을 소개하면 그 선정 기준은 수입량이 큰 품목과 原料輸入의 존도가 큰 消費財 기타 國際收支改善에 효과가 큰 품목으로 되어 있다.

그 품목은「에너지」부문의 油類·石炭·電力과 糧穀부문의 쌀·보리·밀·기타 주요품목으로 설탕·原綿·종이·羊毛·生고무·原木「코피」「코코아」淸凉飮料原液과 「사이다」香등 17개품목과 輸入機械類이다. 그 가운데서 汎國民運動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油類·電力·쌀·설탕「코피」종이등의 節約에 注力하고 있다.

이의 추진방법으로는 우선 消費抑制, 效率提高, 廢物資再活用 및 國産代替를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節約하는 생활습성을 기르는 정신운동을 펴나가고 있다.

物資節約運動이 본격화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보면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은 節約施策을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物量面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産業界와 일반 가정에서도 節約하는 분위기가 점차 조성 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은 올해 2백 23억원의 절약 목표를 세우고 油類를 비롯한 電力·公共料金·事務用品·印刷費등의 절약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豫算節約 외에도 主要資材의 國産代替, 代替材使用, 廢物資再

活用등 각 분야에 걸쳐 상당한 절약 효과를 가져 왔다.

특히 政府投資機關은 기존 시책은 물론 독창적인 節約方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좋은 실적을 올렸다.

예를들면 지금까지 소각해 오던 古銅線被覆을 전량 機械脫皮 작업으로 전환시켜 廢PVC 재활용과 PVC소각으로 인한 公害를 제거하기도 했다.

또 高速道路 通行券規格을 축소하여 용지와 印刷費를 절약하고 防塵塔을 설치하여 유실되는 飛散炭을 방지했으며 鐵板製 分電盤을 PVC分電盤으로 대체하여 자원절약에 앞장 섰다.

産業界선 2千億원 節約 目標

産業界의 物資節約運動은 大韓商工會議所를 비롯한 각 경제 단체가 工場새마을運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올해 2천억원절약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전 기업체에 價値分析技法을 보급시키기위해 책자 발간, 社內敎育성과, 조사등 다양한 방법으로 物資節約日誌를 작성토록 유도하는가 하면 節約實踐指針 및 經濟倫理綱領등을 會報에게재, 종업원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勤儉節約의 생활화를 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녀·사회단체에서는 消費節約 실천수기 공모를 통해 주부들의 消費節約精神을 드높였고 主婦敎室을 開設하여 節約과 消費者保護를 위한 敎育을 실시 했으며 家電製品 전시를 가져 節電을 지도하는등 가정의 衣·食·住 生活에 있어서의 物資節約을 생활화하도록 계몽했다.

이처럼 物資節約運動을 전개한지 만 1년여를 넘긴 지금 우리주변에는 節約의 氣風이 눈에띄게 조성되어 가고 있다. 奢侈風潮가 고개를 숙이고 虛禮虛飾에 치우쳤던 낭만적 習性이 儉素·勤勉한 生活態度로 바뀌어가고 있다. 따라서 物資節約運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지름길은 무엇보다도 이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는데 있다.

物資를 아끼는 마음이 習性化되어 누가 보아도 韓國民은 勤儉節約하는 民族이란 말을 들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節約運動 持續的 추진

大統領도 『가난한 나라에서 經濟建設을 하자면 한個人이 自手成家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덜쓰며 아끼는 경우와 같이 국민의 勤勉節約에 바탕을 둔 貯蓄의 힘이 없이는 그 成果를 거둘 수 없다』고 말하고 物資節約運動을 꾸준히 持續的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物資節約運動은 크게는 高價의 機械類 國産代替로부터 작게는 각 가정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한장의 휴지줍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있다.

그러므로 한 燈의 電氣를 끄고 한장의 종이를 아껴 쓰는 등 국민 각자 자기위치에서 독창적으로 物資節約에 앞장서는 創意力을 발휘한다면 이 運動은 손쉽게 성공적으로 結實을 맺을 수 있다.

내가 주은 한장의 휴지속에서 우리와 우리 子孫에게 물려줄 祖國의 繁榮된 내일이 깃들어 있음을 확신한다.

不良食品 근절하여 健康社會 이룩하자